아직도 나는 내가 아닌 이유

(사사기 15:1~20)

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16.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 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18.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20.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아직도 나는 내가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아직도 나는 내가 아닌 이유'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다면 남편과 아내 때문에 행복 하십니까? 남편과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 자신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일평생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여서 직장에 다닐 때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아직 자신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아직도 자식이 걱정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자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퇴할 정도로 세상을 살았으나 나를 못 찾은 것이고, 결혼 30주년이 지나도록 나를 못 찾은 것이고, 손자가 태어났어도 나를 못 찾은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장관도 지냈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이제 그 일들을 회상하고 있다고 하여도 아직도 나를 못 찾은 것입니다. 평생 연구 생활을 하시던 교수님이 눈이 어두워서 책을 읽지 못해 마음이 허전하시다면 아직 나를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떠한 모습입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야 나를 찾은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자아의식을 '나'라고 혼동할 때가 있는데 자아의식은 나를 찾기 위한 기능입니다. 자아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이제부터 나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찾아진 진정한 나는 어떤 나일까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요소가 기쁨이고 기쁨은 만족에서 주어집니다. 만족과 기쁨이 변함이 없을 때에 행복이 주어집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만족이 아니고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본래 속성은 변함이 없어야 하고 영원한 것이어야 하므로, 진정한 나는 진정한 기쁨을 찾았을 때이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상태가 진정한 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나를 찾을 때에 관계 안에서 찾게 되는데, 한 여자와 결혼하면 남편이 되고 자식을 낳으면 아빠가 됩니다. 교인들 앞에 있으면 목사가 되고 제자들 앞에서는 선생이 됩니다. 대한민국 앞에 있으면 국민이 되고 부모 앞에 있으면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관계 안에서 나를 찾는데 어떤 관계 안에 나를 세워야 내 안에 있는 만족과 기쁨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겠습니까? 변함없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관계에서의 내가 진정한 나이므로 이 세상 안에서의 내가 갖는 관계 안에서는 진정한 내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남편인 것이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불변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여도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자식들은 내게 불변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문을 하는 교수님이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고 연구를 못함으로, 그것이 더 이상 내게 기쁨을 줄 수 없게 되었다면 교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뭘 했어도 그것이 불변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진정한 나는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이 세상 바깥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요즘 '인문학 책을 읽자'는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문학적 천재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입법론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데 입법론을 읽은 뒤의 존 스튜어트 밀도 아직 진정한 나는 아닙니다. 육체가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라면 진정한 나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선민이 진정한 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 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맺는 관계에서 얻어지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등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가치들을 더 많

이 더 높이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등을 해도 결국은 세상의 가치들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굴복했다'는 것이고 '먹혀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은 이 세상 그 어떤 가치에 대한 관계에도 의존하지 않고 세상 바깥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찾은 선민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큰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지음 받은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큰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내 본연의 존재의 사명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큰일은 없게 됩니다. 세상의 일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기 때문일 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이 세상의 일들은 큰일이 없고 단지 크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세상일이 다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워낙 큰 분이시고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과 관계를 맺을 때에 세상일은 큰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육체가 죽는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보자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당신을 세우시자 육체가 죽는 것도 큰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육체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바쁜데, 자기 육체가 죽는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작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해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고 단지 이론뿐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거나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루아크로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내 본래의 모습이 풍선처럼 부풀면서 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딤나에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한 방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다가 심사가 틀어져서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여 옷을 노략하여 아내를 닦달한 자들에게 주고, 집으로 갔다가 한참 뒤에 다시 아내를 찾으러 왔더니 장인이 블레셋의 다른 청년에게 아내로 줘버린 후였습니다. 화가 난 삼손이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꼬리에 횃불을 붙여서 추수한 곡식단과 추수 할 곡식들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밭까지 다 태워버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원인제공자로 불살라 죽입니다. 그것에 삼손이 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유다 땅 레히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자, 유다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쳐들어 왔느냐'고 묻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만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 삼천 명이 모여서 삼손을 잡아다가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라고 하는데 블레셋을 보는 유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조그만 성읍 레히에 블레셋 사람들이 천 명이 들이닥치자,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을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무려 삼천 명이 모여서 삼손을 잡아다 블레셋에 바칩니다. 그러면서 삼손에게 11절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지고 나귀의 새 턱뼈로 천 명을 죽이게 되고, 목이 말랐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부리는 삼손의 모습과 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 천 명을 죽이던 삼손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 유다지파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서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나를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천 명을 죽인 삼손의 모습은 임시적인 것이고, 목이 마르다고 떼를 부리는 삼손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착각입니다.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삼손은 생물학적 필요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죽게 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책임감과 인격적 특성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삼손을 찾기 위한 재료에 불과합니다.
내게 인격이 있습니다. 말 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책임감이 있고, 윤리의식이 있고, 죄책감도 느끼고, 사회적인 특성상 인간과 관계를 맺고 생물학적인 필요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닌 나의 재료입니다. 삼손의 진짜 모습은 목말라 울부짖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가 진짜 삼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물과 사람들에 대한 관계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지는 오감을 통해 육체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감이 아닌 하나님의 대상성을 느낄 수 있는 6감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다음에 가는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관계가 될 때에 진짜 나를 찾게 됩니다.

유다지파를 보면 완전히 자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고군분투하며 블레셋 사람 천명과 싸우는데 단 한명도 삼손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다지파는 선민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시는 대표적인 지파인데 그들이 삼손을 잡아 바칩니다. 무서워서 그랬다면 나중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 천 명 중에 팔백 명쯤 죽였을 때 대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에브라임지파의 기회주의적인 마음으로라도 좀 참여해서 도와주거나,

목 말라하는 삼손에게 물이라도 한 그릇 떠다줄 수 있었을 것인데 삼손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유다지파가 자신들의 선민 됨을 완전히 상실하고 삼손을 원수로 여기며, 블레셋과는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비굴하게 블레셋의 기분을 잘 맞춰줬으면 블레셋도 유다를 적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삼손만 내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세상과 이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하찮은 배설물로 여겨서 이 세상을 향해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실현시키는 자기 동족인 선민을 잡아 줍니다.
우리는 삼손보다는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마음에 침투해서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고 그저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로 현실적인 대상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현실에 먹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에서 크게 보이는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데 유다와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세상을 크게 보는 유다지파와 같은 나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는 주님께서 죽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저주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한 진공 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는 나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다지파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으로 충만함이 더럽고 죄악이고 간음입니다. 행위는 죄악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죄를 따지면 안 되고 죄악이라는 나무를 봐야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서 세상 생각만 하고 세상 때문에 기쁘고 세상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죽으면 다 없어질 이 세상 것들 때문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관계 안에서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나를 보고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저주 받아야 될 이유인 진공상태이신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더럽고 추악한 영적 간음자인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인데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저주받아야 될 이유의 진공상태이신 그 마음 속에 나를 끌어들여 품으심으로, 주님에게 저주가 임해야 될 이유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으로 가실 때 십자가에서 주님 안에서 죄악된 나를 발견했던 그 사람은 승천하신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관계하시듯이 나도 아버지와 관계에서 주님 안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하늘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차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안에 죄악 된 나를 발견하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영이 임한 내가 진정한 나입니다.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이 가

득 찬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다가 죽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를 찾지 못한 것이고 진정한 나로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세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찾는 복된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더 이상 이 세상 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십자가를 봄으로 하루하루를 나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